

살인은 꼭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간접적 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도 살인으로 봅니다. 아합은 나봇을 직접 살인하지 않았습니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꾸미고, 장로들을 통해 거짓 증인을 세워 법을 이용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네가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왕상 21:19).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고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정치적, 법적 살해도 살인입니다(시 94:6).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다른 말로 ‘존재론적 살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라가’, 즉 ‘바보, 가치 없는 자’라고 상대방을 헐담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마 5:22). 형제에 대한 인격적인 살인도 ‘라차흐’(죽이다)와 동일하게 취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처녀를 강간한 것도 살인으로 봅니다(신 22:25-27). 생물학적 죽음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역시 살인입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시 24:1).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창 9:6), 그리스도께서 피 값으로 구원하신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므로(고전 6:19-20),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자살, 술, 담배, 마약, 환경 오염 등). 결국, 제6계명의 초점은 ‘행동’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구원 사역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 ① 내가 가진 권한과 지위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 ② 나의 언어와 행동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